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인구소멸 위험'

나주·무안 추가...전국 105곳 중 97곳 비수도권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나주시와 무안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올해 추가되면서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특히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편차를 드러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없었다.

앞서 2018년에는 89개이던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2020년에는 16곳 늘었다. 부산·인천·대구·전북·경남 각 1곳, 전남·경기·충북 각 2곳, 강원 5곳이다. 전남에서는 소멸위험 지수 0.499를 기록한 나주와 0.487을 기록한 무안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했다.

2014~2016년과 2016~2018년 각각 5곳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지난 2년 동안 비수도권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이 가팔라

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시군은 ▲광역시도 내 낙후지역 ▲강원도 지역 ▲'시'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기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뉴딜사업, 도시재생,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경북도와 함께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의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은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범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참가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기존법률이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은 소멸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비판했다.

토론회에서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국내 인구는 지난 70년대 대비 68% 증가한 반면 전남 인구는 52%가 감소해 지방 인구감소를 계속 방지하면 지역사회붕괴는 시간 문제다"며 "이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농어촌, 5G 비싼 통신비만 내고 안 터진다

기지국도 지방소의 심각 전남, 세종·제주 다음 적어 신안군 '0'개, 완도군 1개

5G(5세대 이동통신) 통화품질과 값비싼 통신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농어촌지역일수록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대도시 수준의 5G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5G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 세종 다음으로 전남이 기지국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설치된 13만2008개의 기지국 가운데 전남은 1.9%에 해당하는 2506개에 불과했다. 신안군은 기지국이 아예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고 완도군은 기지국이 달랑 한 개 설치됐다. 강진·고흥·진도군은 기지국이 각각 2개 설치됐는데 반해 곡성군과 장성군은 각각 159개, 107개가 설치되는 등 두드러졌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기지국이 10개 이하인 지자체는 34곳으로 이중 전남이 10곳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5G 기지국이 한 개도 증설되지 않은 지역은 전국에 17곳이고, 이중 전남이 7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인구수나 면적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전남이 5G 통화품질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농어촌 지역 일수록 서비스 제공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대도시 지역과 같은 통신비를 내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별 기지국 설치현황 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구례관광특구 선정

구례 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2년간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6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구례 등 모두 5개 관광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구례관광특구는 지난 1997년 구례군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산동면 일대 78.02㎢ 규모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구례군은 지난 1989년에 지정된 지리산온천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축제와 관광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뒀다. 특히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배포를 비롯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 대한민국합화대전을 통해 구례관광특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계림2동 마을비전 실천단 발대식 7일 광주시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마을비전 실천단 발대식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마을비전 실천단은 마을자원조사서를 바탕으로 의제 발굴, 설문조사, 비전교육 등을 통해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전남도, 금고 1순위 NH농협은행·2순위 광주은행

내년부터 3년간 도금고 수행

전남도는 7일 "전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갖고 금고운영 기관으로 제1순위 NH농협은행, 제2순위로 광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도의원을 비롯 교수, 공인회계사 등 각계 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에서 금고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청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예규)과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내외 대출 및 예금규모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

역사회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놓고 심의, 평가를 했다.

전남도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달 중 1순위 NH농협은행을 1금고로, 2순위 광주은행을 2금고로 지정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다. 제1 금고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맡고, 제2 금고는 7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전남도 3회 추경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조 6247억원, 특별회계 8646억원, 기금 1조2702억원(지역개발기금 7565억원)으로 총 10조 7595억원에 달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외국인 직접 투자, 17개 광역단체 중 '꼴찌'

0.06%에 불과...5년째 최하위

광주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가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총 709억1700만달러(833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주지역 외국인 투자 금액은 4500만달러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0.06%에 불과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00만달러 ▲2016년 1300만달러 ▲2017년 800만달러 ▲2018년 600만달러 ▲2019년 600만달

러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장 작은 규모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은 526억5900만달러로 전체 투자금

액의 74.25%를 차지했다. 이어 영남권 92억7200만달러(13.07%), 충청권 42억 3800만달러(5.98%), 강원·제주 39억 6700만달러(5.59%) 순이었다.

호남권은 7억4900만달러로, 전체 투자 금액의 1.06%에 그쳤다.

송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비수도권의 인센티브보다 수도권 투자를 선호하고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늘부터 이틀간 습지센터서

전남도가 8일부터 9일까지 순천국제습지센터 내 야외 행사장에서 '2020 실패박람회 in 전남 리본박람회'를 개최한다.

'2020 실패박람회 in 전남 리본박람회'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로, 온택트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민참여 속 의토론, 실패학 콘서트, 온라인 상담마당, 인기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 토크콘

서트 '비 개인 오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8일 오후 5시부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진행될 개회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재정 행정안전부 차관, 서동용 국회 의원을 비롯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 봉사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박람회의 메인프로그램인 '도민참여 속의토론'은 분야별 지역 이슈로 선정된 의제에 대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갖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랑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